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휴일이면 증심사 주차장과 도로 옆에 외지 탐방객들이 타고온 관광버스 행렬이 길게 늘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탐방객 천만명시대 '국민의 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탄력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⑥ 국립공원 승격 효과

지자체 벤치마킹 행렬 등 방문객 5배 ↑ 생태공원 복원 등 국가차원 체계 관리 1만8천명 고용창출·2320억 경제효과 "도시브랜드 가치, 금액 환산 어려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연간 생산 파급효과 1950억원, 소득 파급효과 370억원 등 23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관리인력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00명으로 늘어나고, 일자리도 연인원 1만8000여명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타지역 국립공원의 지역 내 경제 파급효과는 북한산이 연간 3847억원, 설악산 3351억원, 지리산 1076억원, 계룡산 1059억원 등이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효과는 광주의 도시 브랜드 상승에서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 외지 관광객 유치, 국가차원의 무등산 보존 등 유·무형적으로 매우 많다. 특히 체계적인 야생 동·식물보호 등이 이뤄져 수많은 국내 외 탐방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격되자마자 외지 방문객 급증> 무등산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전국에서 몰려드는 등산·탐방객들로 '국립공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광주시청에도 국립공원 승격의 행정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대구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질 정도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전과 후의 모습은 타지역 탐방객을 싣고 오는 관광버스의 대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승격 후 증심사 입구를 기준으로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버스는 평일 20~30대, 토·일요일 100~150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 승격 전 평일 1~2대, 휴일 20~30대에 비하면 5배 이상 급증한 숫자다. 무등산의 연간 탐방객은 700만명 수준인데, 현 추세면 올해에는 10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무등산 자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난 등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할 정도다. 급증하는 방문객들로

무등산 주변 상가들도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국비 970억원 투입>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비 970억원이 무등산의 공원관리, 자연생태계 복원, 탐방시설, 사유지 매입 등에 투입된다.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주차장 16개소, 탐방지원센터 28개소, 야영장 3개소, 오토캠핑장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휴게소 6개소, 자연학습장 3개소, 박물관 1개소 등이 들어선다. 당장 올해에만 100억원이 투입돼 자연자원조사, 탐방로 안내표지관·주차장 및 진입 도로 정비, 사유지 매입·주민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관리주체가 광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비용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공원관리 예산도 현재 연간 25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수목 병해충작업과 훼손지 복구 등도 국가에서 책임진다. <광주 도시브랜드 상승도 기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효과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선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이후 광주의 다양한 선진행정을 배우겠다고 벤치마킹에 열을 올릴 정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인 효과와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문용운 환경생태국장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으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무등산에 대한 광주시민의 자부심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와 무등산 임남형 향토사학자

의재 허백련 선생 화실 찾아 인연



1971년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의재 허백련 선생의 화실 뜰에서 무등산을 배경으로 배만운 전 대법관과 김형수 화가, 의재 선생, 향토사학자 임남형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래에 무등산 하면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 선생을 떠오르게 한다. 허백련 선생은 해방 후 한국화 6대 작가로서 무등산 기슭에 자리 잡고 스스로 의도인(毅道人)이라 칭하며 영산(靈山)의 도인답게 살다가 신 나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다. 선생은 후학양성을 위해 연회를 개설하고, 근원 구월우, 구담 이범재, 동강 정운명, 목재 허형면, 옥산 김옥진 등에게 서화를 가르치며 한국화 보급의 일을 담당하신 분이다. 나와 배만운 전 대법관, 그리고 김형수 화가는 70년대 당시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를 돌아보고 하산길에 의재 선생의 화실에 들르곤 했다. 선생은 젊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무등산의 천제단을 비롯한 문화유적의 유래와 설화를 들려주시기도 했다. 하루는 선생께서 우리에게 작품 한 폭씩을 그려 주셨다. 당시 황홀(惺惺)한 마음을 기리 간직하고자 기념촬영(위)을 했다. 얼마후 선생은 별세하셨으나 우리 일행의 우정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지금도 그날을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무등산을 좋아하는 동기로서, 광주예향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무등산시가문화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나는 한때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무등산시가문화원보존위원회'를 창립하고, 박선홍(무등산보도단 체험의회 초대회장), 안진호 전남대 교수 등과 같이 고문으로 추대돼 활동하기도 했다. 호남학을 대표하는 학문이라면 그래도 문화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문화의 전성기라 하는 목능성세(穆陵盛世)에서 호남파 시인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 시인들 대부분이 무등산 원효계곡의 정자를 출입하면서 계산풍류(澗山風流)를 일으켜 시가문화권을 형성했다. 나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가를 배출하고 모태가 된 식영정의 주인으로 시단을 주도했던 호남의 사종(嗣宗) 임억령의 연구에 몰두해 '석천 임억령의 생애와 시문학'이란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무등산 갤러리 김영태 작 '無等山'(2002) Oil on Canvas(45.5 x 37.9cm)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무등산이 좋아서 소태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시시각각 변하는 무등산 색과 내 마음속 무등산의 색을 조화시켰다. 빨간색은 내 마음속 색이자 독재에 항거하는 내 그림의 표현이다. 내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빨간색은 금기시되던 색이었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